‘신의 한 수’와 ‘그 신의 수’

(사무엘상 24:1~22)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벰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의 한 수’와 ‘그 신의 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의 한 수와 그 신의 수’

얼마 전 구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다섯 번에 걸친 대국의 생중계를 2억 5천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4로 이 세돌 9단이 한번 이김으로서 대국이 끝났습니다. 이 세돌 9단은 백돌을 쥐어 이긴 4국에서 180수까지 진행되어 불계승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때에 78수를 온 세상이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하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세돌 9단은 이러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 수밖에는 둘 데가 없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78수가 4국을 승리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수였는데, 이 세돌 9단이 정말로 둘 곳이 없어서 두었다면 그것은 선택적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돌 9단의 수준에서 볼 때에 그랬던 것이겠지만 이 말대로만 보자면 4국의

승리는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이고 필연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78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수였던 것입니다.
'신의 한 수'는 인간이 둘 수 있는 여러 수중에서 마치 신이 둔 것 같이 승리를 견인하는 절묘한 한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대로 '신의 수'는 신이 직접 인간 세상의 바둑판에 당신의 수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떻게 인간 세상에 당신의 수를 직접 두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수를 두실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장갑으로 사용될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장갑으로 끼는 어느 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지만, 일은 장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갑을 낀 당사자가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장갑으로 끼시고 신의 수를 두신다는 것이지요.
이 세돌 9단의 말대로라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둘 데가 거기밖에는 없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적으로 고민하여 수백 수천의 수 중에서 두게 된 수가 아니라 그렇게 두도록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이 세돌 9단이 신의 장갑이 아니었겠냐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수를 두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수를 두시기 위한 장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선택되고 구분된 표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나온 기름부음의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세상의 바둑판 위에 직접 수를 두시기 위해서 어느 한 인간을 신이 끼시는 장갑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물론 물건에도 기름부음이 있어서 그 물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부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의미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당신의 수를 두시기 위해 끼시는 장갑들이었습니다. 기름부음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러한 기름부음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역의 성패가 기름부음에 달려있다고 믿으므로 사건이나 상황의 특별한 계기를 통해 확신하고 싶어 하고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도 쓰임 받았고,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선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빌라도도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지 않은 쓰임 받음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채로 쓰시는 것인데 아이스하키나 필드하키처럼 스틱으로 공을 몰아가서 쓰여 지는 것이고, 기름부음 받으므로 쓰임 받는 것은 장갑이 되는 것인데 쓰임 받음보다도 먼저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쓰임 받는 사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쓰임 받음입니다.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미와 역사를 완성 종결시킨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신의 한 수이면서 그 신의 수입니다. 영어의 대문자 정관사(The)를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그 신의 수'입니다.
고전1:22~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인들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24~25절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집결인 그 신의 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의 수는 보통 신의 한 수와 어떤 차이가 있고, 신의 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의 수와 그 신의 수인 십자가는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모든 신의 수가 그 신의 수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신의 수로 채워져 나갑니다.
바둑의 역사를 짧게는 2,500년 정도 길게는 4,00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긴긴 역사를 통해서 '정석(定石)'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바둑의 역사 속에서 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행마, 포석 등) 최선의 수가 정석입니다. 결정하여 가장 최선의 돌을 놓는 것이 정석인데, 이 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다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경제이론이 경제학 바둑판에서 정석인데 그 정석대로 경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신의 수와 다른 것은 경제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 결혼문제 등 어떤 삶의 국면에서도 그 신의 수가 되는 것인데 붙박이의 정석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나오고 축적되었던 바둑의 정석들이 알파고에 의해서 다 깨어져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경제학이론, 모든 인간관계이론, 모든 의학적 지식 등이 다 깨져 나갑니다. 그 신의 수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쥐고 있는 수이고 승리로 이끄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의 대국에서 신의 한 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신의 수로부터 샘솟듯이 신의 수들이 이어져 나오므로 해결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지상주의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한 여학생이 남녀공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이 여학생이 자신을 볼 때 다리도 짧고 얼굴도 크고 코도 주먹만 하고 다 못 생겼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신의 수인 십자가 사건이 해결 수인데 왜 이것을 경험을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기름부음 받기만을 원했지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올바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 신의 수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신의 수, 기름부음 받으심의 종결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신의 수로 점철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을 뿐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추종자들은 절호의 기회이니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기름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식으로 기름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그 신의 수로부터 신의 수가 샘솟듯이 나와서 신의 수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느끼는 장애를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인데 어떤 장애입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개인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위기감과 위협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장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신의 수를 붙잡습니다. 기름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노라'고 고백하는데도 너무나 위협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삶에 급박하게 밀려오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닐까?'라는 사울로부터 다윗이 느꼈을 위기감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결혼문제, 직장문제, 취직문제 등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수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수가 나타나려면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할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가 힘든 것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기름부음 받은 자인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태도가, 기름부음 받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울과 예수님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시해서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려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와 마찬가지의 위협과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핑핑 돌아가도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삶의 위기들을 내가 죽은 자로 해버리면 나는 이제 망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러운데 내 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해도 과연 내 삶이 가능하고 내 삶이 멸절되지 않겠느냐는 위협이 느껴질 때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부정적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고 합니다. 당연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돈 문제로 몰려가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이게 유혹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위협감으로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보일 만큼 유혹적이고 합당하게 승률이 높게 여겨질 때 십자가를 붙잡지 못합니다. 요렇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신의 수인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신의 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분야의 정석은 다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우주의 체질이 녹아지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정석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오늘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기름부음 받으신 주님에 대해 취한 이 태도가 나를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장갑으로 사용되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수가 이 땅에 계속 놓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간으로서 수를 두다 어쩌다 한 번 경험하는 신의 한 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의 수로만 삶이 충만하도록 기름부음 받으심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